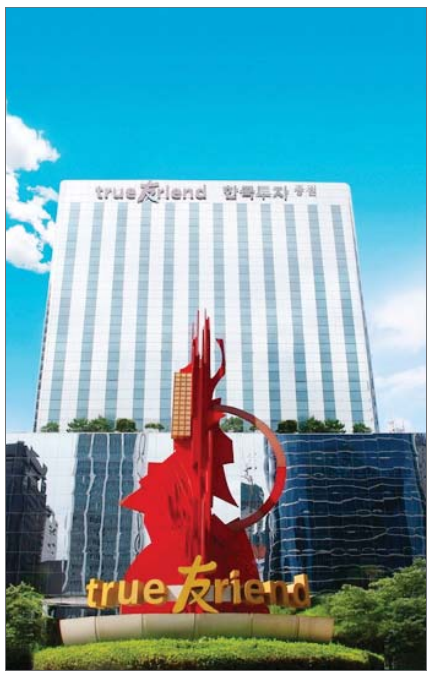
빅테크 공습, 생태계 달라졌다… '디지털 혁신 일상화' 대응

증권사 경영전략

❶ 한국투자증권

거대 빅데이터 기반 빅테크 진격
정일문 대표이사 '디지털 혁신' 등
전사가 앞장서 선제적 대응 주문
증시 호황 속 리스크 철저 대비도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2021년 한국투자증권의 경영 목표는 '디지털 혁신'이다. 금융업의 벽을 허물고 시장에 뛰어 들기 시작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 기업들과 맞서기 위해서다.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하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업), 종합지급결제업 등 다양한 전자금융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들이 금융시장 진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전통 금융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의 각축전은 이미 시작됐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혁신의 일상화'를 제시했다. 그 역시 빅테크 기업의 진출을 의식하고 있다. 그는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전사가 대응에 나서야 하고 앞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 혁신 이뤄내야"

정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며 "우리의 일상 안에 혁신의 길이 있다"며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디지털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에 뛰어든 빅테크들로 달라진 생태계를 올해 경영의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에겐 어떠한 환경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숙명이 있기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며 "이제 금융시장의 화두는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장의 말 대로. 지난해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금융투자사업에 진출했다. 토스도 올해 자회사인 토스증권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대형 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고, 중소 테크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조직개편에서도 정 사장의 고민이 묻어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플랫폼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했다. 정 사장이 직접 지휘한다는 얘기다.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Biz본부의 기획·개발조직과 민트(MINT·Mobile Investment)부를 통합했다.

정 사장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리테일, 홀세일, 투자은행(IB)·프로젝트파이낸싱(PF), 운용부문, 본사관리 등 전사가 대응에 나서서 앞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의 절차, 내가 만나는 고객, 내가 만드는 자료 등 일상 안에서부터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디지털 혁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스크 대비…"모든 시나리오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실물 경제와 증시와의 간극에 대해서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증시 호황 속에 잠재돼있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

정 사장은 "금융시장은 욕심과 공포가 공존한다"며 "눈앞의 욕심에 사로잡혀 공포를 망각하는 것도, 반대로 공포를 두려워해 욕심을 지나치게 자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를 토대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일부 본부와 부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를 전제로 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담보돼야 공정한 조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며 "공정문화를 위한 공개의 일상화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K-OTC 작년 거래대금 1.3조 '사상 최대'

시총 전년비 2조7725억 증가
일평균거래대금은 28% 늘어

지난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의 거래대금이 1조27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투협은 6일 '2020년 K-OTC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K-OTC의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2조7725억원 증가한 17조4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연도별 거래규모 현황〉 (단위 : 억원, 천주)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거래대금	일평균	23.9	9.0	6.5	10.9	27.7	40.3	51.5
	연간	2,054.2	2,222.8	1,590.6	2,636.7	6,755.1	9,903.7	12,765.9
	(누적)	2,054.2	4,277.1	5,867.7	8,504.3	15,259.4	25,163.1	37,929.0
거래량	일평균	479	555	1,114	931	645	649	1,050
	연간	41,223	137,736	273,973	226,156	157,281	159,549	260,288
	(누적)	41,223	178,959	452,933	679,088	836,370	995,919	1,256,207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40억3000만원) 대비 27.9% 증가한 5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0월 15일에는 K-OTC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연중 거래대금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64만8573주) 대비 61.8% 증가한 104만9548주를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거래규모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키움증권, 하루 약정금 22.9조 신규계좌 4만개 '역대 최대'

비대면 계좌개설 선점효과 두각
올해만 11만7000개 계좌 개설

키움증권이 지난 5일 국내주식 일 약정금액 22조9000억원, 신규 계좌개설 하루 최고 기록 3만9756개를 돌파하는 등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6일 밝혔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900선을 넘어섰고 단숨에 코스피 3000시대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국내주식 일 약정금액은 지난 4일 19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5일 22조9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11월 25일 20조10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신한 것이다.

키움증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장선점 효과는 올해 들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인 4일 하루에만 3만3925개의 신규계좌가 개설돼 일 기준 신규계좌개설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5일 3만9756개가 개설돼 단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뛰어 넘었다. 올해 이미 11만7000개 이상의 신규계좌가 개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역사적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019년 일평균 10조8000억원에서 2020년 일평균 27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거래대금의 증가와 개인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지난해 키움증권은 일평균 약정금액 11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6%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12월 역대 최고인 16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 기준 개인 시장점유율(M/S) 30.1%(키움증권 집계 기준)를 나타냈다.

또 지난 12월 신규계좌 개설은 50만2000개로 3월 기록했던 월 기준 신규계좌개설 최고 기록인 43만1000개를 뛰어넘었다. 4분기에 개설된 신규계좌만 95만5000개다. 이는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개설된 전체 신규계좌 333만4000개의 28.6%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미경 기자

GS건설 '가평자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

59~199㎡, 505가구 규모
비규제지, 안심전매 등 도입

GS건설은 신축년 새해 첫 분양예정인 경기 가평 대곡2지구 '가평자이' 아파트에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S건설이 가평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평자이는 59~199㎡ 505가구로 구성된다. 가평에서 단지규모도 가장 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91가구 ▲76㎡ 94가구 ▲84㎡ 178가구 ▲124㎡ 32가구 ▲135㎡(펜트하우스) 8가구 ▲199㎡(펜트하우스) 2가구 등이다.

가평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 비(非)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의 가평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본적으로 70%까지 적용된다.

GS건설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함께 계약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계약금(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2차 계약금은 한 달 여 뒤에 계약금 10% 중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특히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을 도입해 계약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청약과 대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도 많았다"며 "GS건설은 가평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가평자이에 중도금 무이자, 안심전매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가평역이 있으며 ITX청춘을 이용하면 서울 상봉역까지 약 38분 거리다.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대가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는 가평터미널이 있으며 가평대교, 46번 국도, 75번 국도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또한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GS건설 '가평자이'.